

세계평화기원문

삼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오늘 제16차 한중일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한중일 3국의 사부대중 일동은 이곳 중국 해남도 남산사 해수관음 광장에 모여 세계평화를 일심으로 염원하며,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립니다. 일찍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해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살생의 생명존중을 최고의 계율로 하는 우리 불교는 진정한 평화의 종교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음을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초전법륜에서 다섯 비구에게 중도에 입각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시며 깨달음의 진리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을 모든 중생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은 대승불교권으로 그 중심에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힘쓰는 대승불교의 수행자 보살사상이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3국의 불교도는 이러한 가르침에 충실하여 보살의 정신으로 못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동체대비의(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연기적 삶을 이해하여 정진한다면 우리모두가 바라는 불국정토 구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환경과 문화로 생존해 왔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경쟁하며, 교류하고, 발전하여 눈부신 과학문명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탐·진·치 삼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이익과 만족을 위해 끊임 없는 경쟁과 개발,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불법의 핵심인 연기적 관계를 망각한 인류가 저지른 행위로 이제 준엄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는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천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야할 길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는,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를 중단하고, 또한 모든 종교는 대화와 교류로, 서로를 인정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오늘의 이 법회가 증명되어 지구촌 모든 중생에게 석가세존께서 설하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생명, 평화, 자비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2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